Composer's Alliance of New Music

제39회 작곡동인 소리목 정기연주회

책이 있는 음악회 III

황유원 작가의

세상의 모든 최대화

2018. 12. 5 |수| 오후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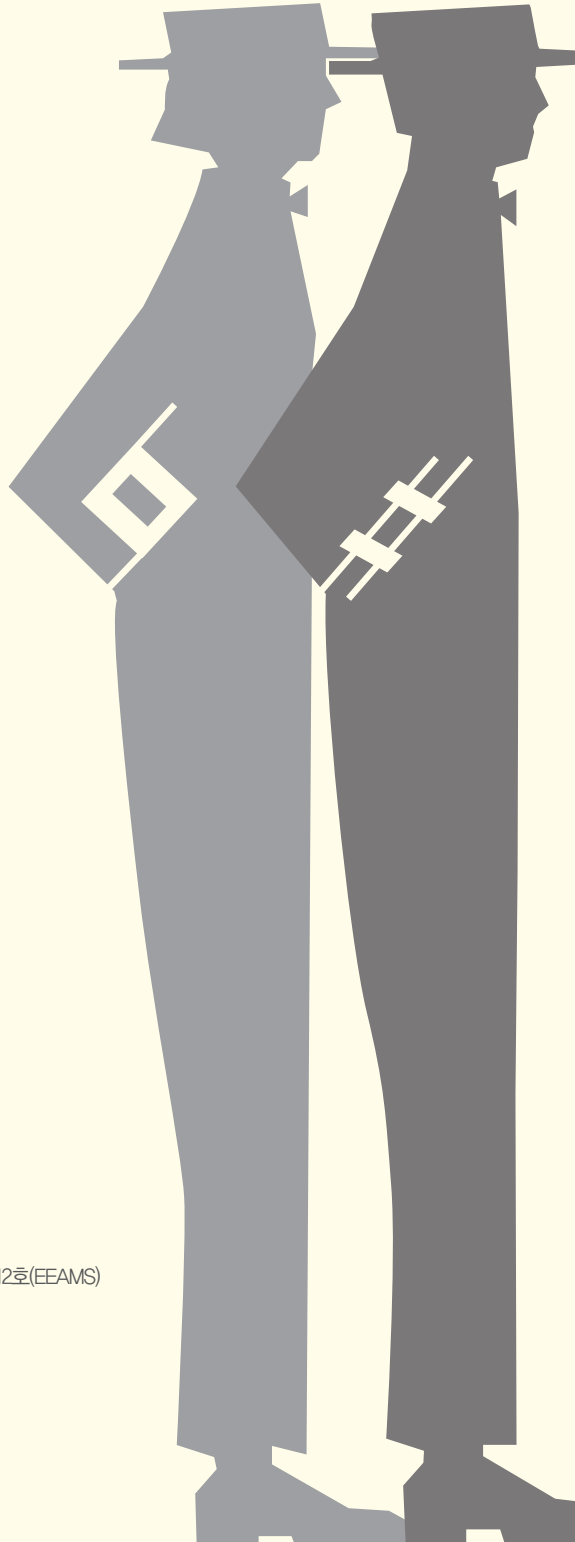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세미나〉

2018. 11. 30 |금| 오후 7:00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212호(EEAMS)

주최 : 작곡동인 소리목 주관 : 현대문화

후원 : (사)한국작곡가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9회 작곡동인 소리목 정기연주회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작곡동인『소리목』공연에 시인 황유원 선생님을 포함하여 직접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1989년 4월에 창립한『소리목』의 '소리'는 음악을 의미하며 '목'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옛말 '모꼬지'의 첫 발음으로서 앞으로 우리 창작음악계에 공헌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진실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작곡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중들과 함께 느끼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으며 나아가서 세계성 있는 작품을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 작곡동인 『소리목』 고문 최승준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소리목』은 2016년부터 책과 관련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시리즈를 계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 <책이 있는 음악회>에서 다루어진 파트릭 모디아노의『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에 이어 2017년도 두 번째 시리즈로 선택된 작품은 2016년 제7회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하며 한국문학의 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금희의 두 번째 소설집『너무 한낮의 연애』였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함께 하는 작품은 2013년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데뷔하였고, 2015년 제34회 <김수영 문학상>에 선정되어 동년 민음사에서 출판된 황유원 시인의 시집『세상의 모든 최대화』입니다. 서동욱 시인은 <김수영 문학상> 심사에서 그에 대해 '가식 없이 절실한 시적 정황들이 주는 무게감을 시편 하나하나가 고르게 성취하고 있는 황유원의 진지한 세계는 매우 드물고 값지다.' 고 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황유원의 시집『세상에 모든 최대화』에 수록된 작품들을 읽은 작곡가들이 그의 시를 통해 받은 영감을 투영한 다양한 음악언어로 창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시인 황유원과 본 단체의 작곡가들이 동시대의 한국이라는 공간에 살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예술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에 서로의 예술관과 작품세계를 공유하고 나누며 시와 음악이라는 장르를 잇는 공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르를 넘어 예술가로서 공유하는 미학, 하나의 아이디어가 예술작품으로 구현되는 과정 등을 관객과 소통하며 이해하기 위해 시인 황유원을 초청하여, 음악회 전 11월 30일 작곡가의 세미나를 개최, 작품에 나타난 의도와 예술성, 장르에 따른 표현양식과 구현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젊은 음악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오늘의 음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작곡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곡동인『소리목』회원 일동
http://www.sorimok.org

프로그램

< 책이 있는 음악회 >

선회 (2018) **최창석**

〈Seonhoe〉 for Bass Clarinet Solo

B. Cl. 김욱

층 (2018) **홍윤경**

〈In Layers〉 for Violin and Cello

Vn. 김미가 / Vc. 정승원

단어놀이 (2018) **장대훈**

〈Word Play〉 for Piano Solo

Pf. 신주연

감각의 여행 (2018) **서유라**

〈A Journey of Sensation〉 for Violin, Cello and Piano

Vn. 박재린 / Vc. 이은솔 / Pf. 박효민

Intermission

매달린 것들은 다 (2018) **박은경**

〈Suspended All〉 for Violin Solo

Vn. 박신혜

오디토리엄 (2018) **정미선**

〈Auditorium〉 for String Quartet

Vn. Ⅰ 강민정 / Vn. Ⅱ 송화현 / Va. 이상민 / Vc. 강지성

일체감 (2018) **백자영**

〈Sense of Unity〉 for Bass Clarinet, Guitar and Piano

B. Cl. 김욱 / Gtr. 이노영 / Pf. 이선옥

시인 황유원

시인이자 번역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등단해 시집 『세상의 모든 최대화』로 제34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했다. 옮긴 책으로 『밥 딜런: 시가 된 노래들 1961-2012』(공역), 『예언자』, 『소설의 기술』 등이 있다.

시인 황유원 인터뷰

@LUCY

『세상의 모든 최대화』

Q1.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고요, 곧 이어서 바로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어리둥절했던 이유는 현대음악 작곡가분들이 제 시집을 봤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였어요.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또 시를 쓸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소리'예요. 각 단어들이 가진 소리들의 유사성, 구어체의 자연스러운 리듬, 반복되는 문장의 형식 등을 가지고 시를 펼쳐나갈 때,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모종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쓴 시들인데, 그게 다시 소리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니 회귀하는 기분이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죠..."

Q2. 순수 예술이라는 같은 범주 안에서 저희와의 차이점 또는 공통점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차이는 당연한 것이고, 그 차이가 독특할수록 재미있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수단이 문자에서 음표로 바뀌는 거니까, 그 차이가 더 독특해지겠죠.
그리고 소리목이 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쓰는 시, 그러니까 현대시와도 비슷한 점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시라는 게 두 가지 같거든요. 말을 가지고 놀았다는 흔적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도달한 의미가 어느 정도 의미심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리목의 음악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작품들이 될지 당연히 상상이 안 되는데, 애초에 음악과 소리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이 문자들의 배열이 다시 음악으로, 일부분이나마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우선 아주 좋아요. '돌고 돈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시가 다 사라져버리고, 시집에서 해당 시들이 차지하고 있는 페이지가 아주 공백이 되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소리목 여러분들이 고르신 그 시들, 이제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그 시들이 부러워요. 저도 누가 음악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Q3. 작품과 그 해석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데 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독자는 늘 있는 듯 없고 그 존재감은 미미하지만, 일단 한 번 등장하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해석자와 창작가 간에 물론 거리가 있지만, 그게 정말 아주 먼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독자에 대해 생각하면, 이건 소리목 여러분들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제 시를 읽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요, 평소에는 독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갑자기 독자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꽤나 놀라죠. 아주 간혹 다음 책 언제 나오느냐고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아,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뜻밖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분을 만나면, 아, 한편 한편이 다 소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거나 거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제게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독자들 같고요, 그건 소리목의 경우도 다르지 않겠다 싶기도 해요. 애초에 이런 예술을 향유하시는 분은 소수고, 소수라고 해서 그 목소리가 가볍지도 않은 분들이니까요. 어쨌거나 저의 독자들, 그리고 소리목의 청중 여러분도 마음껏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느끼는 것도 조용한 참여의 일종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창작이니까요..."

< 선회 >

'...베이스 클라리넷 독주곡 〈선회〉는 새의 선회하는 시각적 이미지와 움직임 그리고 사진으로 촬영될 때의 이미지를 소리로 청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듣고 소리로 변환하는 이미징 테크닉(Imaging Technique)을 사용하고 있다. 정지, 선회, 원, 향기, 흔적 그리고 동행의 총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박자변이(Metric Modulation)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자유 숫자 형식(Free Number Form)의 직관적인 적용을 통해 음악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작품 〈선회〉는 황유원의 시집 『세상의 모든 최대화』 중 〈새들의 선회 연구 – 한 장의 사진〉이라는 시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작곡동인 소리목 연주회를 위해 쓰여졌다...'

<선회> 프로그램 노트 중

Q1. 전체적인 작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이 작품은 박자변이에 의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 부분마다 특유의 이미지 외에 연상되는 색깔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첫 부분인 '정지'에서는 검정색이 연상되며, 이러한 이미지는 소리로 구체화되게 됩니다. 한편 주요음인 B음은 시김새와 더불어 작품 전체에 투영되어 있고, 어떤 주요한 주제나 화성, 리듬 없이 자유롭게 발전되면서 전체적으로 긴장의 흐름을 따라 구성됩니다.

Q2. 음악적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는지요?

저는 자연과 시, 문학, 과학, 수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적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러한 음악적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음악으로 구체화될 때, 특별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별적 소리의 특성과 그 개별적 소리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관점과 미학적 경향이지만, 이를 통해 저만의 독특한 음악 언어와 경향으로 영원한 빛과 희망의 소리(音, Sounds)를 조각하고자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빛과 희망을 표현하는, 살아 있고 의미 있는 소리로 청중들과 소통하고 싶은 것이 저의 작은 바램입니다.

@LUCY

일단 사진으로 찍으면 정지. (중략)
그대들의 온갖 선(線)들도
그대로 정지.

그러니 찍기 전까지는 선회,
찍고 난 후에도 선회, (후략)

<새들의 선회 연구 - 한 장의 사진> 중에서 발췌

최창석

전북대학교 작곡 학사(B.M.) 및 석사(M.M.)
미국 Queens College CUNY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M.A.)
영국 University of York 작곡 박사(Ph.D.)
ABLAZE Records Pierrot Ensemble Series Vol. 2 CD 출반
현) 작곡동인 소리목, 창악회, ISCM Korea, ACL-Korea,
전북작곡가협회 회원

작곡가 최창석 인터뷰

두고 오길 잘했지
들고 온 것도 마저 여기 두고
다시 더 많은 걸 두러 가야만 하고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걸 두고 오다 보면
결국 모든 걸 두고 가야 할 때가 오는 거겠지

<첩첩산중> 중에서 발췌

홍윤경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박사(D.M.A.)
Rednote Music Festival, SEAMUS, SCI National Conference, 위스컨신 주립대학 심포니 쇼케이스, 대구 MBC 교향악단 코리안 모던 클래식 등 연주
현) 숙명여자대학교, 경성대학교 출강

작곡가 홍윤경 인터뷰

'...황유원 시인의 『세상의 모든 최대화』 중 〈첩첩산중〉을 기반으로 하여 쓴 곡으로 시의 구조와 소재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음악의 전체 구조는 시에 포함되어 있는 현재-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점의 변화를 적용하여 A-B-A'의 형태를 가진다. 시의 전반적 흐름이 시인의 '두고 온다'라는 표현에 의하여 통제되듯이, 음악 또한 음악적 장치를 통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음악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시인이 두고 온 '첩첩산중' 속의 기억은 바이올린과 첼로를 사용하여 관계가 설정되고 발전하면서 표현된다...'

<층> 프로그램 노트 중

Q1. 음악과 다른 예술 매체인 '시'를 바탕으로 하는 곡을 쓰면서 가장 집중했던 점은 무엇인지요?

이 프로젝트는 작품의 오리지널 창작자가 있고, 그 작품을 다른 창작자가 재해석 혹은 재창조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작업의 장점은 같은 작품을 놓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업의 경우 시와 음악, 두 매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로 표현하기 좋은 것과 음표 혹은 악기로 표현하기 좋은 것의 차이를 갖습니다. 단순히 시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음악을 통한 또 다른 단계의 감상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2. 연필을 잡게 되는 순간, 어떤 과정에서 시작되는지요?

매번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소리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곡의 주제가 될 소리를 몇 가지 떠올려보고 종이에 음표로 옮겨 적어 서로 간의 연관성, 대조성 등을 분석하면서 대략적인 계획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된 소리들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으로 소리들을 색칠해보거나 그림을 그려보면서 간단하게 도식화 시킵니다. 이를 통해 추상적이던 것이 구체화되면서 구성과 아이디어에 대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LUCY

'...이 곡은 황유원 시인의 〈새처럼 우는 성 프란체스코를 위한 Demo Tape〉을 처음 접하고 느꼈던 생각을 음악으로 표현해본 작품이다. 시를 읽고 처음 느꼈던 감정은 난해하다였고, 반복적으로 시를 읽을수록 머릿속에 남는 건 이 시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이었다. 어느 날 16개월 정도 된 아들이 '새'라는 단어를 소리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의 첫 번째는 '하나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소리치기'라는 사실을 배웠다. 이 시도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을까? 단어가 어떠한 구조와 방식으로 얽혀있느냐가 문체를 결정하고 그 농도에 따라 이해도는 달라진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과정이 즐거우면 되는 것 아닌가? 마치 두 살 배기 아들이 '알아듣기 힘든 자신만의 언어를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 곡에서는 하나에서 시작하여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그렇게 점점 증가하며 얽혀가는 아이들의 단어놀이를 음악으로 표현해보았다. 음의 조합은 스케일을 이루고 스케일의 중첩은 화성이 된다. 어떤 뜻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이 즐거울 뿐이다. 마치 처음 말을 배우는 아이들처럼 말이다...'

<단어놀이> 프로그램 노트 중

Q1. 작품을 통한 작곡가의 의도는 무엇인지요?

이 작품을 통한 제 의도는 한 가지로, '흥미롭다. 재미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이 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시가 담고 있는 메시지, 서사적 구조, 내용 등이라기 보다는 이 시가 재미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단 재미있는 단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문장들이 재미있고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미가 맞아 떨어지는 것, 3이라는 단위가 계속 반복되는 등 여러 부분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쓰게 되었고, 곡을 쓰면서도 '흥미롭게 접근해 보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Q2. 음악과 다른 예술 매체인 '시'를 바탕으로 하는 곡을 쓰면서 가장 집중했던 점은 무엇인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독립성입니다. 어떤 다른 예술 매체를 바탕으로 곡을 쓰면서 그 예술 매체를 단순히 해석하고 서포트 하는 역할이 아니라 융합과 해석을 넘어 독립성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음악이 존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대훈

국민대 예술대학 음악학부 작곡 학사(B.A.)
프랑스 Ecole Normale de Musique de Paris 고등 디플롬(Diplôme supérieur)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박사(D.M.A.)
37회 난파 콩쿨 작곡부분 대상, SEAMUS, ICMC, NYCEMF,
범음악제,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등 발표
현) ISCM, 창악회, 전자음악협회 회원

참새 비둘기 까치
다 나를 피했다
있는 힘을 다해
두루미 청둥오리 수리부엉이
훨훨 훨훨 훌훌

<새처럼 우는 성 프란체스코를 위한 Demo Tape> 중에서 발췌

작곡가 장대훈 인터뷰

@LUCY

바람을 먹은 문장들은 압정이라도 밟은 양 비틀,
거렸고 비틀, 비틀
거려서 타르르르르! 다시 환상은 시작됐지

아이가 아직 아이였을 때
예술은 늘 크레파스의 몫이었지

<크레파스로 그린 세계 열기구 축제> 중에서 발췌

작곡가 서유라 인터뷰

서유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B.A.) 및 석사(M.A.)
동대학원 박사(D.M.A.)
ACL-Korea 신인콩쿨 우수상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젊은 작곡가 공모 연주
Nong Project, 신진국악 실험무대, 서울창작음악제 등 연주

'...단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황유원 시인의 〈크레파스로 그린 세계 열기구 축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이다.
시의 첫 시작인 '아이가 아직 아이였을 때'는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트케의 시 중 반복구로 시에서 일곱 번 사용되는데 이를 압축하여 곡의 구성에 반영하였다. 또한 아이와 크레파스로부터 연결되는 과거의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해 슈만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중 〈북유럽의 노래〉를 조금씩 변형하여 곳곳에 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곡의 전체적인 음정 구조를 구축하였다.

한편 아이, 예술, 열기구 등 첫 자음이 'ㅇ'인 단어들에서 연상되는 회전과 시에서 사용된 대조적인 단어들, 다양한 감각들에 집중하였으며 시의 시작인 '아이가 아직 아이였을 때'와 시의 마지막인 '내겐 여전히 일도 아니지'의 두 행을 연결시켜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현재의 시간에서, 아이처럼 꿈을 향해 감각의 여행을 시작하며...'

<감각의 여행> 프로그램 노트 중

Q1. 글과 음악의 관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이 먼저, 음악이 먼저』라는 책은 '작가가 들은 음악, 작곡가가 읽은 문학'이라는 부제를 가지며 저자 정준호는 이를 직접적이고 고차원적인 교류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오자와 세이지씨와 음악을 이야기하다』에는 음악의 리듬처럼 글에도 리듬이 존재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하루키와 오자와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렇듯 글과 음악은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관계를 맺어 왔으며 이러한 연결 고리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작가로서의 입장으로, 어쩌면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한 글과 음악은 동행하며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Q2. 음악적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는지요?

주로 작고 소소한 부분들에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미술, 문학 등 다른 예술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편입니다. 이번 곡의 경우, 황유원의 시 <크레파스로 그린 세계 열기구 축제>에 나타난, 관심 있던 작가 페터 한트케와의 연결점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평소에 전시회에 가서 벽면에 적혀 있는 문장이나 단어들을 하나씩 적어오거나 어떤 문학 작품의 문장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아이디어들을 단편적으로 또는 서로 연결, 조합시켜 음악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저만의 판타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안에서 저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매달린 것들은 다>

쳐다보는 것도 매달리는 거겠지
끝내 손 놓아 버리고

우수수

떨어지기도

<매달린 것들은 다> 중에서 발췌

박은경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B.A.) 및 동 대학원 작곡과 석사(M.A.)
프랑스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 de Boulogne-Billancourt (DEM:Composition/Orchestration)
프랑스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Départemental de Créteil(CFEM:Ecriture)
Takef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13, Tokyo Wonder Site & Ensemble Modern Academy in Tokyo 2013, ACL Korea 국제음악제
Mise-en Festival in New York 2015, 대구현대음악제 등 작품발표
2017 ARKO 주관 스웨덴 국립전자음악연구소 EMS 레지던시 선정 참가

작곡가 박은경 인터뷰

'...황유원의 동명의 시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매우 비대칭적이고 특징적인 강조적 행을 지니고 있는 이 시는 특히 비대칭의 균형이 잘 살아있는 시이다. 내러티브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율적인 강조점을 확실하게 지니고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 선택하게 되었다.

시어의 흐름은 그의 다른 시에 비하면 확연히 음악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비대칭적인 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칭적인 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의 내러티브는 일견 통일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제한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상당히 자유로운 시상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로운 흐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되, 시인이 강조한 연, 예를 들어 '우수수' 같은 부분은 음악적인 강조점으로 기능한다. 또한 시인이 '매달린 것들'로 사용한 시어들은 각각 변형된 하나의 음악적 재료로 이용되어 시와 음악의 구조적인 짜임새와 소재의 유기적인 융합을 꾀하려 하였다...'

<매달린 것들은 다> 프로그램 노트 중

Q1. 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황유원 시인의 이지적인 시어들 안에서 특이하게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눈에 확 띄었습니다. 또한 시의 운율과 연, 행 사이의 관계가 무척 음악적이라고 느껴졌으며 시를 읽으면서 무엇인가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느낌이 드는 것도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2. 우리 시대의 음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현대 예술은 난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의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전 시대의 예술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장르입니다. 혹여 예술가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으며 굳이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느껴야 한다라는 편견이나 부담감 없이 감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디토리엄〉은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의 착각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네 대의 현악기의 다양한 주법과 서로 다른 음색의 혼합을 통해 같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소리들 간의 부딪힘으로 혼란, 착각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현악기의 최고음에서 나타나는 피치카토를 통하여 마치 날카로운 타악기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부딪힘이 갑작스럽게 동일한 움직임으로 변환되어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결국엔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 곡 전체에 운율감이 느껴지도록 리듬감을 주었으며 빠른 주법과 음색의 변화로 곡의 재미를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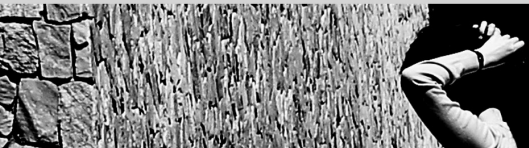
<오디토리엄> 프로그램 노트 중

Q1. 음악적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는지요?

사소한 일상이나 주변에서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의 경우 시, <오디토리엄>에서 얻어 같은 현악기군이라는 강당을 짓고 서로 다른 재미있는 음색들을 주재료로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특이한 소재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에서 음악적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다른 시각, 나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음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Q2. 대중과의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떠한 언어를 구현해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더 쉬운 언어인지, 다양한 언어인지에 따라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술적 도구입니다. 음악을 표현하는 재료가 달라졌다고 해서 본질적인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작곡가가 자신의 언어를 구축해서 그것을 음악으로 풀어내고 진심을 담는다면 분명 그 음악을 통해서 청중들은 메시지를 전달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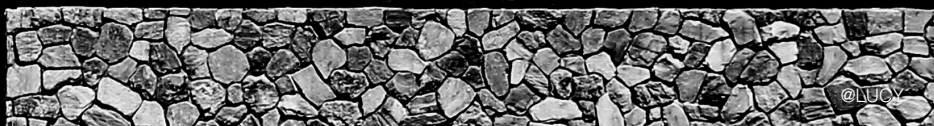
파도 치는 바다인 동시에
떡갈나무 흔들리는 숲 속
눈 감으면 알 수 없으리
여기가 바닷가인지
숲 속 한가운데인지

<오디토리엄> 중에서 발췌

정미선

한양대학교 작곡과 학사(B.A.)
독일 Hochschule für Musik Franz Liszt Weimar(Aufbaustudium)
독일 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Rostock(Großes Kompositionsexamen)
독일 제27회 지크부르크 시립 작곡 콩쿠르 1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문화부 장학재단 선정 작곡가,
한국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전속작곡가
북독일 교향악단, 독일 앙상블 모데른, KBS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외 유수의 악단과 작품연주

작곡가 정미선 인터뷰



백자영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B.A.)
오스트리아 Universität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Graz 졸업(M.A.) 및 Postgraduate과정 이수
헝가리 바르톡 페스티벌, 슬로베니아 국영 방송국 작품 연주 및 녹음
현) 숙명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출강

작곡가 백자영 인터뷰

투명하게
무음으로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세상은 거의 사라졌다

<일체감> 중에서 발췌

<일체감>

'...이 작품은 황유원의 시 〈일체감〉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으로 세 악기의 음색이 섞여 하나의 덩어리로 향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음악에서의 일체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음들과 음색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큰 음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작품 전체에 일체감을 주려고 하였다

이 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세 개의 악기들의 폭발적인 소리, 그 소리의 파편들의 작은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이 결합되어 뭉쳐지는 음색들의 과정을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앞서 뭉쳐져 있던 덩어리가 다른 음색과 자연스럽게 섞여 하나의 큰 덩어리로 들리게 된다. 이 곡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황유원의 시 〈일체감〉의 마지막 부분과 같이 조용한 소리들로 마무리 된다...'

<일체감> 프로그램 노트 중

Q1. 선택한 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는 '무음'입니다. 물론 제 작품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주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리를 사람들에 들려주기 위해 작곡을 하며 아무것도 아닌 음(무음)을 작곡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무음'이란 존재하지 않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무음이라는 것은 '들리는 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Q2. 대중과의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의 현대음악은 일반 대중을 수용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작활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청중이 현대음악을 익숙해하지 않아 작곡가로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음악에서의 소통은 청중이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얻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느낄 수 있다면 작곡가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청중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LUCY

연주자 프로필

Clarinet_ 김욱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프랑스 에브리, 쥬느빌리에음악원 졸업
· 프랑스 U.F.A.M 국제 콩쿨 실내악 부문 1등
·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역임
· 현) 316앙상블 리더, CMB567 단원, 성신여대 출강

Violin_ 김미가

· 독일 Rostock 국립음대 학사, 전문연주자과정, 마스터과정 졸업
· 북독일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계약 단원, 독일 뉘른베르크 Kapella 19 챔버오케스트라, 독일 로스톡 Kamerata Artika 챔버오케스트라 단원, 시티필하모니, 서울펠리체심포니 객원 악장, 서울바로크플레이어즈 객원 수석 역임
· 현) TIMF앙상블, KBS교향악단 객원 단원, 현대음악 앙상블 엑스 단원, 시티필하모니 수석

Cello_ 정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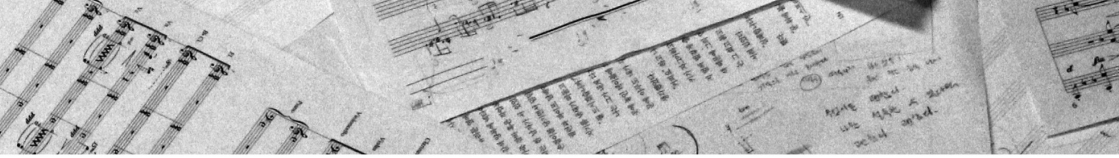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졸업
· New England Conservatory 석사 졸업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박사 졸업
·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충북도립교향악단 객원 수석 역임
· 현) 선화예중, 덕원예고 출강, Seoul Virtuosi 단원, TIMF앙상블 객원 단원

Piano_ 신주연

· 예원, 서울예고, 이화여대 피아노과 졸업
·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학교(Koninklijk Conservatorium) Bachelor, Master 졸업
· 현대음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Ligety Academy 수료
· Louis Andriessen, Heinz Holliger, Steve Reich, James MacMillan 등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에 참여,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Violin_ 박재린

· 예원, 서울예고, 연세대 음대 졸업
· 독일 쾰른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석사 졸업
· 프라임필, 한경필 객원 수석 및 서울 유니버셜 오케스트라 악장, 목원대 강사 역임
· 현) 숭실대, 덕원예고, 경기예고, 인천예고 출강, 서울그랜드필, 플레이어즈필 및 리움 챔버 수석, 앙상블 포럼21, 앙상블 우리, project21AND, TIMF앙상블, 서울챔버오케스트라 멤버



Cello_ 이은솔

· 클리브랜드음악원 학부 및 대학원 졸업
· 카네기멜론대학교 Advanced Music Studies 오케스트라 과정 졸업
· 카네기멜론 컨템포러리 앙상블 오케스트라 수석,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시카고 시빅 오케스트라, 뉴월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에크론 심포니 오케스트라, 캔튼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이얼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단원 및 객원 역임
· 현) 서울 솔리스트 앙상블 단원

Piano_ 박효민

·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재학 중 도독
· 베를린국립음대(UdK) 학사 및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 한국일보, 서울음악콩쿨, 서울심포니콩쿨 등 국내 다수 콩쿨 입상
·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in Enschede special prize, 독일 프랑스대사관 초청연주, 독일 베를린악기박물관 초청 독주회, 세종체임버홀 독주회, 하나음악재단 주최 독주회 및 실내악 등 국내외 활동

Violin_ 박신혜

· 독일 뮌스터 음악대학 학사 및 석사 졸업
·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 및 앙상블 모던 아카데미 석사 졸업
· 자브뤼켄 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현) 선화예술학교 출강,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수석

Violin_ 강민정

· 서울예고 졸업,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Diplom 졸업
·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Konzertexamen 최우수성적(mit Auszeichnung) 졸업
· 대진대 문화예술콘서바토리 외래교수, 숙명여대, 동대학원 강사 역임
· 현) 계원예고 출강, 에이블뮤직아트그룹 강사, Cross Chamber Orchestra 단원, 앙상블 아인스, 안음앙상블, 그릿앙상블 멤버

Violin_ 송화현

· 선화예중, 선화예고 졸업,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우등 졸업
·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Künstlerische Ausbildung(전문연주자과정) 최우수점 만장일치 졸업
· 독일 뮌헨 국립음대 Meisterklasse(최고연주자과정) 만장일치 졸업
· Hannover Kammer Orchester 제2악장, NDR Radiophilharmonie 연수 단원,
· Philharmoniker Hamburg 제1바이올린 단원 역임
· 현)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Ensemble Eins 단원, 선화예중, 선화예고 출강

Viola_ 이상민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 Hamburg musik Hochschule Master
· Dresden musik Hochschule Konzertexamen
· Ensemble Eins 단원,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계원예고 출강
· 서초 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Cello_ 강지성

· 서울예고 졸업
· 드레스덴 국립음대 학사, 석사 졸업

Guitar_ 이노영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Diplom 졸업
·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 국제 기타 콩쿠르 "Johann Sebastian Bach" in Reisbach 2위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숭실대학교, 서울예고, 안양예고, 예원학교, 선화예중 출강

Piano_ 이선옥

· 프랑스 파리 에꼴노르말 피아노 및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 심사위원만장일치 1등 졸업
· 프랑스 Ecole Nationale de Musique d'Evry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스페인 등 국내외 다수 독주회 및 현대 전문 연주자로 활동
· 선화예중, 선화예고, 동의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 현) 316앙상블 단원, 한국피아노듀오협회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소리목 세미나>
2018. 11. 30(금) 오후 7:00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212호(EEAMS)

백자영 '조화(調和)로운 조합(組合)'

장대훈 '정답 없는 의문 from <Unanswered Question>'

작곡동인 소리목

홈페이지

소리목 Youtube

Youtube

소리목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소리목 페이스북

페이스북

후원 문의
회계 박은경 sereti8@gmail.com / 010-9380-3041

시(詩)로

듣다 ...

제39회 작곡동인 소리목 정기연주회